



(...2 페이지에 이어) 그는 베일을 지금의 톱스타 자리에 오르게 한 직접적인 발판이 된 영화다. 그동안 연기력은 높게 평

가받았지만 B급 배우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그는 이 작품을 통해 DC 코믹스의 슈퍼스타 역할을 맡으면서 단순히 할리우드 1급 배우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은 팀 버튼 감독이 이뤄낸 판타지 감각의 배트맨과 달리 리얼리티에 바탕을 둔 무게감 있는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크리스찬 베일은 2008년

▲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 (2013)

<다크 나이트>에서도 브루스 웨인 역으로 출연, 내적 고

▲ 아담 맥케이 감독의 <바이스> (2018)

뇌와 갈등을 겪는 배트맨을 탁월하게 그려냈고, 2012년 <다크 나이트 라이즈(The Dark Knight Rises, 2012)>에서는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크리스찬 베일은 배트맨 실사 영화 시리즈 중 가장 오랜 기간 배트맨을 연기한 배우이기도 하다.

이 된 미키 워드(마크 월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제83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등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파이터>에서 미키의 형이자 마약 중독자에, 트러블메이커인 닉이 에클런드 역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은 아카데미 남우조연상과 제68회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제17회 미국배우조합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덜 알려진 영화라도 자신의 연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열심히 참여한다. 오히려 대형 블록버스터보다 그런 작품을 더 좋아한다. 그럼에도 블록버스터에 출연하는 것은 "지명도가 낮아지면 내가 원하는 배역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마술이며 수수께끼다"

다양한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출연하는 영화마다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주는 크리스찬 베일은 유난히 상복이 없는 배우이기도 하다. 그 수모(?)를 단번에 날려준 영화가 유명 복서 미키 워드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파이터>다.

미국에 정착한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백업(back-up) 선수를 거쳐 라이트웰터급 세계 챔피언

비적 마르고 결렁한 몸짓으로 "네게 온 기회야. 난 놓쳤지만 너는 잡아야 해!"라며 동생을 다그치는 형의 투박하지만 애정 어린 모습을 표현한 그의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딱딱한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어 그는 미 부통령 딕 체니로 변신한 <바이스>에서 몰오른 연기력으로 제76회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과 제24회 크리틱스초이스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크리스찬 베일은 사생활을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는 마술이며 수수께끼다"라는 말을 한 적 있는데, 영화와 연기를 향한 그의 단도직입적 몰입은 일종의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닐까 싶다.



▲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포드 V 페라리> (2019)

친문 조리돌림 당한 이수정 "피해자 돼보니 그심정 알겠더라"



통합당행 비판하며 친문들 '신상털기' "익명 공격 당해보니, 피해자 심정 더욱 이해 여성 인권보호에 정파가 어디있나"

한국의 대표적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0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달 통합당 성폭력특위에 참여한 뒤 '왜 토착 왜구당으로 갔느냐' 역시 수구적폐였다' 등 친문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일부 친문 네티즌은 이 교수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러한 여론에 대해 "여성 인권 보호가 정파에 따라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해선 "부조리한 일이 온라인상 익명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

▲ 미래통합당 성폭력 특위에 합류한 이수정 교수.

지만, 제가 막상 피해자가 되어 보니 더더욱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치인이 아닌데 참여를 하게 돼 굉장히 낯선 상황이고, 생뚱맞은 느낌"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여러 일을 해왔고, 위원회가 성적 침해와 관련한 입법에 적극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성적 침해에 대해 협소하게 보는 편인데, 정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줘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위원을 맡은 데에 대한 비판은 충

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통합당이 지금까지 여성 인권 감수성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았더라도, 특위에 참여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의 가치를 알리고 여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실행에 옮기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통합당 성폭력 특위 합류한 이수정 "'NO' 할 이유 못찾아"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현주소를 생각할 때 당을 가리면서 입법 지원을 해야 할 이유

를 잘 모르겠더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통합당이 '이런 특위를 만들 건데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화로 제안했다"며 "제가 통합당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망설였지만, 굳이 'NO'를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스토킹 방지법 입법 실패 등을 거론하며 "20년 동안 여성피해를 어떻게든 보고하고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 보니 (통합당을) 거절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통합당의 성폭력 문제 대처 과정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충분히 타당한 비판이다"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특위에 제가 참여했다. 당장 내일부터 국회의원들을 교육해달라고 (하더라). 그런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비즈니스 스페이스 렌트

한인 상권의 중심지인 고려플라자에서 새로운 렌트를 구합니다.

- 면 적 : 1) 856 sqft, 2) 1,050 sqft
- 업 종 : 한의원, 학원, 클리닉, 치과, 사무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 문 의 : 최순일 부동산, (403) 479-1472